

강진군 652억 투입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정책 119개·유통 37개 사업
청년·여성농, 대체 소득작목 육성
친환경 농자재·스마트팜 시설 지원

강진군은 올해 농업 분야 예산 652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투입하는 농업 분야 예산은 농업정책 119개 사업 592억원, 농업유통 37개 사업 59억원으로 나뉜다.

농업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여성농 육성과 식량작물·대체 소득작목 육성, 시설원에 기반시설 조성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농업유통 분야에서는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과 쌀 소포장직 제작용 지원사업(3억 9000만원) 등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강진군은 올해 마을 76곳에 각 320만원을 지원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펼치며 일손 부족을 돕는다.

20~75세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 상당 '행복바우처'를 나눠준다.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강진군은 준비를 들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는 벼 경영안정자금 82억원이 투입된다.

강진군은 6300여 농가에 벼 육묘 비용 13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공익수당 50억 8000만원을 847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원(왼쪽) 강진군수가 지난 30일 모내기 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의견을 들으며 일손을 돕고 있다.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는 1억2500만원을 투입하고, 논농 재배 육성 사업비는 3억원을 편성했다.

16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농기계 지원사업'에는 드론(무인 항공기)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이 포함됐다.

강진군의 대표 농작물인 쌀귀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펼친다.

쌀귀리 재배 현장 1500ha에 구산 또는 칼슘 성분 분을 포함한 비료 3억원 상당을 나눠줄 계획이다.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대표 특산품으로 키워내기 위해 9억9000만원을 투입, 농촌융복합 산업화에 나선다.

강진군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방침이다.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벼 40만원, 무농약 벼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첨단 농장) 등 원예·특작 분야 시설 투자(36억원), 농산물 소멸저장고 지원(32억4000만원) 등도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30일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인 도암면 향촌리 옥전마을 농가를 찾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논의를 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천 습지에서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발견

순천향대 연구진 야생생물 조사

함평나비대축제(~6일)가 열리고 있는 함평역스포공원 인근 함평천수변공원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대모잠자리가 발견됐다.

함평군과 순천향대학교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복합연구소(소장 이용석)는 지난달 19일 함평천수변공원 인공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대모잠자리 12개체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인공습지에서 연산강 유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조사하던 중 대모잠자리를 발견했다.

대모잠자리는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됐다.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이 많고 유기물이 풍부한 갯벌·연못·습지 등 정수 지역에서 서식한다. 한반도 서해안·남해안이나 중국·일본에 분포하며, 날개에 흑갈색 반점 3개가 있고 등에 흑갈색 줄무늬가 있다.

대모잠자리가 발견된 함평천수변공원은 치수 안전성과 곤충 서식 기반을 확보한 곳이다. 국가 하천환경정비사업 2지구 공사로 2010년 12월 준공됐다. 길이 8.3km 구간에 제방, 천변 저류지, 가동보, 생태습지와 자연 학습장을 갖췄다.



함평천에서 발견된 대모잠자리 수컷.

이곳에는 유채꽃과 매화, 목수국, 핑크클리, 파파스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화와 수목이 사계절을 장식한다.

정현천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융복합연구소 교수는 "함평천수변공원은 생태하천과 습지와 수목이 풍부해 안정적인 생물 서식공간을 제공한다"며 "기후 온난화 등으로 나비를 포함한 곤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때, 개체 수를 파악하는 정밀조사와 함께 장기 계획에 의한 생태복원으로 이어진다면 사계절 곤충관찰이 가능한 전국 제일의 자연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규제개선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6월 14일까지... 생활·경영 대상

장성군이 불합리한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군민과 기업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장성군은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민간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과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지규제 개선(농지·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련 등 비규제 항목과 단순 진정·민원은 공모에서 제외했다.

장성군민은 물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획실 규제개혁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js706670@korea.kr)로 보내면 된다.

장성군은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수상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팜' 17일까지 모든 품목 20% 할인 판매

상품 구매 후기 댓글 등 상품 증정

화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hwasunfarm.com)이 오는 17일까지 모든 품목을 20% 할인 판매한다.

'화순팜 가정의 달 행사'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행사는 전 품목 20% 할인(최대 5만원), 신규가입 2000원 할인, 감사 인사 댓글, 상품구매 후 후기 달기 등으로 나뉜다.

화순팜 행사 게시판에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댓글을 남기는 10명에게는 2만원 상당 화순팜 상품을 준다.

화순팜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한 20명에게는 3만원 상당 화순팜 상품을 지급한다.

화순팜 관계자는 "가정의 달 행사로 소비자의 고품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화순팜의 다양한 상품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11일부터 닷새간 담양 대나무축제...죽녹원 첫 야간개장

공연·체험·전시 다양한 행사

담양의 대표 축제인 '23회 담양 대나무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담양군은 대나무축제가 이 기간 '대숲처럼, 초록처럼'을 주제로 죽녹원 일원 야외무대 등에서 펼쳐진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정책관으로 선출된 담양 대나무축제에는 해마다 50만명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행사 주 무대는 기존 추성경기장에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으로 옮겼다.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이 먹거리 공간에서 공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쉬 수 있도록 했다.

주 무대 일원에는 한우를 포함한 30여 개의 먹거리와 청년창업 전시·체험, 농특산물 판매, 디지털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했다.

관광객이 야간에도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죽녹원을 밤 9시까지 연다.

죽녹원 일대에는 소망등, 알전구, 반딧불 전구와 움직이는 조명, 대형 달 촬영 공간·유등을 설치해 야경을 풍성하게 했다.



담양군이 올해 대나무축제(11~15일)에서 선보일 죽녹원 야간 조명이 화려하게 밤을 밝히고 있다.

죽녹원 입장료(3000원)는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환급할 계획이다.

축제 첫날 11일 오전 11시에는 라퍼커션 공연과 대형 아바타 행렬 등으로 축제의 문을 연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풍물패와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무대를 만든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설운도, 김중국, 소찬휘 등 다양한 가수들의 축하 무대와 드론(무인 항공기) 공연이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담양 고향사랑 트롯 가요제를 열고 오후 6시부터는 김경호 밴드와 전자음악(EDM) 파티 등이 축제의 흥을 더한다. 13일에는 성악 트리오와 화려한 불소 무대가, 14일에는 죽녹원에서 '구국순담 100세 잔치'와 '솔로 탈출' 행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전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과 아이돌 '크랙스'와 '이짜나안짜나' 등이 폐막 공연을 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